

대통령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사례 연구: 박정희·김영삼 대통령을 대상으로

김 중 석*

〈目 次〉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III. 박정희 대통령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 분석
- IV.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평가
- V. 김영삼 대통령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 분석
- VI.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평가
- VII.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융(C. J.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박정희·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서 ‘내향적 사고형’에 속하며, 제 2기능인 직관이 발달한 ‘내향적 사고직관형’으로 분류된다. 박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에는 내향적 사고형의 장점이 잘 반영되어 국가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단점도 리더십 스타일에 반영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점도 있었다. 과정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한 맺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개발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향적 감정형’에 속하며 제 2기능인 감각이 발달한 ‘외향적 감정감각형’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외향적 감각형의 장점인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취임 직후 군내부 파벌 해체 등을 통한 군 개혁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외향적 감정감각형의 또 다른 장점들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두드러져서 대북정책이나 재벌정책, 외교정책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mdjskim@naver.com)

논문접수일(2010.4.5), 수정일(2010.8.30), 게재확정일(2010.9.6)

김대통령의 리더십에서도 이러한 분석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다. 김 대통령은 ‘항상 남의 관심을 끌려고 하며 과시적이고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히스테리성 인격의 행동과 아주 비슷한 것이었다.

【주제어: 대통령, 성격유형, 리더십 스타일, Jung, 분석심리학, 심리학적 유형론, 리더십 스타일 분석모형, 박정희, 김영삼】

I. 서론

대통령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특히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함성득(1999)은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특히 대통령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포함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심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치학에서 심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리학과 정치학은 소원한 관계에 있어 심리학이 정치학을 설명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성격요인이나 심리적 특성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중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심리학을 정치학에 접목하여 정치문화를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려면 심리학적 이론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심리학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분석에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 주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대통령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분석모형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맞추어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분석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리더십 현상만을 단순히 설명한 것에 불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자료의 부족과 왜곡으로 깊이 있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재임 시 통치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과장,

왜곡된 것이 많아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통령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만들어 보기 위해, 본 연구는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려고 한다. 실제로 이론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는 실험적 설계를 해야 하지만, 실험적 설계를 하여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500여 명에 이르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론형성의 초기 단계의 논문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김영삼 두 대통령을 선택하여 사례형식의 연구를 하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김영삼 두 대통령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두 대통령의 성격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내성적이고 과묵한데 반해 김대통령은 활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 정정길(1994)은 성격을 포함한 대통령의 자질이 국정운영과 정책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소영(1996)은 박정희와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을 성장배경과 성격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박정희는 업무스타일에서 철두철미하게 일의 진후를 확인하는 행정가적 기질을 보였으며, 김영삼은 그랜드 디자인만 제시할 뿐 나머지는 측근들에게 맡기는 대범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대통령의 성격 차이가 실제로 리더십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바탕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독재, 반민주적 통치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으로 명성을 쌓고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IMF사태를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게 만든 문제점을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근거한 분석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모형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을 이용한 논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2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연구이므로 연구의 방법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모두 분석하고, 더 나아가 외국 대통령까지도 분석해야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¹⁾

심리학적 유형론은 융이 발표한 학설중 비교적 초기의 이론으로 의식의 구조와 각 기능들의 유형, 의식과 무의식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융은 심리학적 유형을 두가지 측면에서 보았다. 첫째, 일반적인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 특징에 따라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둘째, 정신 기능을 사고·감정·감각·직관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 중 적응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우세한 기능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이부영, 1998: 131-133).

1) 일반적 태도상의 종류 - 내향형과 외향형

내향적 태도란 객체보다 주체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며 객체보다 주체에 더 관심을 갖는 태도이다. 반대로 그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객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관심 또한 객체에 더 많이 향해 있을 때 그런 자세를 외향적 태도라 한다. 내향적 태도가 평생의 생활태도를 지배할 때 내향형이라 하고, 반대로 외향적 태도가 우세하면 외향형이라 한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다(이부영편, 1995: 196).

2) 정신의 4기능과 기능 유형

융은 정신기능을 네 가지로 나누어 각 기능 중 우세한 기능에 따라 특수기능상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 특수정신기능이란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인데, 합리적 기능(사고-감정)과 비합리적 기능(감각-직관)의 묶음으로 구분한다. 네 가지 정신기능 중 가장 잘 발달한 한 가지 기능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주기능에 따라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으로 나눈다. 사고형은 이성의 판단법칙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형이다. 감정형은 여성에 흔한 형으로 좋고 싫은 감정적 판단이 우세한 역할을 한다. 감각형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이 뛰어나서 적합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관은 가능성을 알아내는 기능인데, 이러한 직관기능이 우세한 사람들이 직관형이다(이부영, 1998: 171-172). 이러한 기능상의 유형구분을 다시 일반적 태도상의 유형과 합쳐 내향적 사고형, 외향적 사고형 등으로 분류하고(표1), 이론상 두번 째로 발달된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향적 사고직관형, 내향적 사고감각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이부영 편, 1995: 198).

1) C.G. Jung, *Psychological Type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9. pp. 330-407.

2. 연구의 분석틀

1) 분석틀의 구성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의한 대통령의 성격유형은 타고난 선천적 성격적 특성으로 결정된다. 물론 이러한 성격유형은 고정불변의 정적인 상태는 아니고 변화 가능한 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격유형은 항상 그대로 있으며, 큰 틀 안에서 개인적·환경적 영향의 요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는 교육적 배경과 사회적 경력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선천적인 성격 특성에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성격유형은 대통령이 되어서 보여줄 정치적 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유형과 정치적 행동이 보여줄 관련성을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리더십 스타일 분석 모형」으로 분석한다(그림 1). 이 분석 모형(표2)은 본 연구자가 20년 이상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얻은 임상경험과 5년 간 한국판 Gray Wheelwright test를 이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정치인의 리더십과 정책학을 연구하여 만든 것이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기 직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썼으며,²⁾ 2003년 12월 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³⁾ 그리고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월간 신동아에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었던 고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⁴⁾

2)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리더십스타일 분석모형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을 보일 것인가를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바탕으로 예측하여 만든 분석모형이다. 각 성격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과 장점, 단점을 지니고 있다(표2).

2) 세계일보, 2000.7.14; 구영식, “DJ에 전달된 김정일 성격분석 보고서”, 「월간 말」, 2001. 4, pp. 7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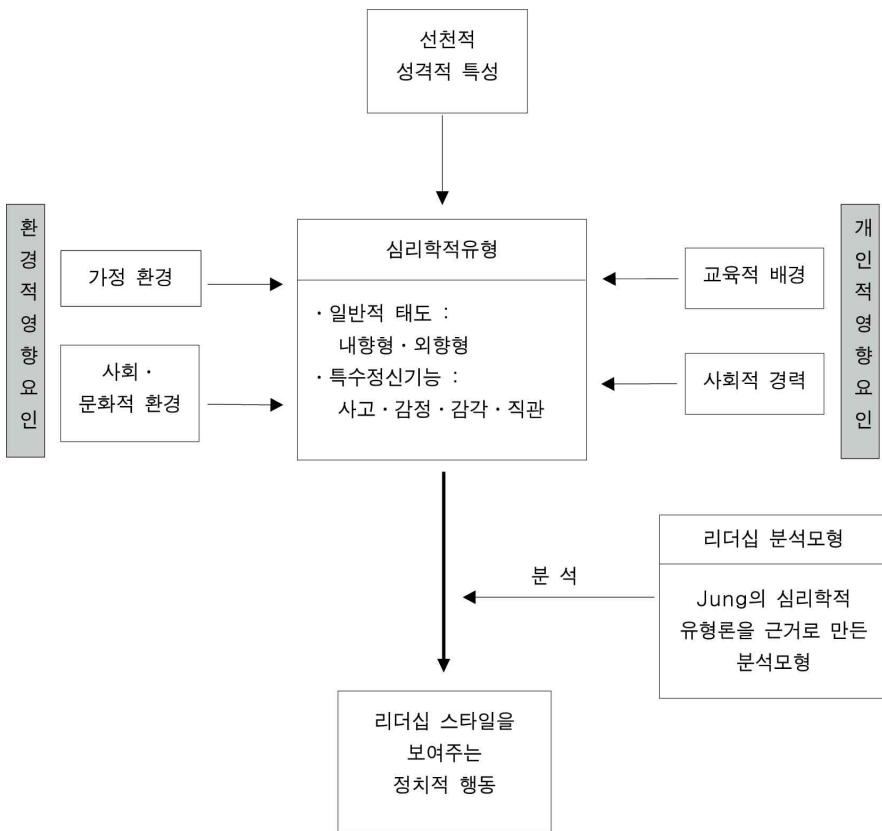
3) 김종석, “노무현대통령의 성격 유형과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연구—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중심으로 —” 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 2003, 12.

4) 김종석, “2007년 대권주자 심리분석 시리즈 1-6”, 「신동아」, 2006. 5~10.

〈표 1〉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의한 성격유형

일반적 태도		외향형	내향형
특수정신기능 합리적 기능	사고형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
	감정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비합리적 기능	감각형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
	직관형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직관형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표 2> 응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리더십스타일 분석모형

리더십 스타일 심리학적 유형	특징	장점 (긍정적 리더십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점 (부정적 리더십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향적 사고형	·원리원칙 중시 ·논리적이고 설득력 강함 ·호전적 기질, 강인하고 냉정함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 선택 ·일관되고 확고한 정책 추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 행사 ·문화, 예술, 교육 분야 정책 취약 ·의심 많아 인사정책 문제점 야기
외향적 감정형	·뛰어난 친화력 ·나서기 좋아함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 추진 ·친화력있는 지도자로 화합 추구	·정책 일관성 결여 ·다른 사람들 의견에 의존
외향적 감각형	·뛰어난 현실판단 능력 ·비상한 현실적응 능력 ·철저한 현실주의자	·가장 유익한 정책 선택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 ·외교, 경제 분야 성공 가능성	·감각적 선택으로 인사정책 문제점 야기 ·충동적, 독선적 정책 결정 가능성
외향적 직관형	·미래 가능성 예측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창조적, 미래지향적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 선택	·현실무시 정책추진 ·실행가능 정책대안 선택에 어려움
내향적 사고형	·개혁추구성향 ·논리적, 분석적 ·치밀하고 빈틈없는 업무 처리	·이상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추진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책수행능력 ·끈기 있는 정책추진 능력	·독재 가능성 ·뚜렷한 흑백판단경향 ·설득력 부족 ·대중적지지 획득 곤란
내향적 감정형	·놀라운 인내심과 깊은 공감능력 ·관용과 양보심 ·도량이 커서 호인으로 인정받음	·여러 의견 수용하여 정책 반영 ·뛰어난 포용력으로 화합추구	·정책 결정 우유부단 ·개성 결여 ·현실 순응 정책 추진
내향적 감각형	·소극적, 현실 순응적 ·유리한 상황 선택 능력 뛰어남	·현실적으로 유익한 정책추진 ·효과 극대화 시킬 정책 대안 선택	·정책 일관성 상실 ·개혁적 정책 추진 어려움 ·근시안적 정책 추진
내향적 직관형	·뛰어난 직관능력 ·현실감각 결여 ·창조적 능력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움	·적재적소 인물 선택하는 인사정책 구사 ·문화·예술분야 정책 성공 가능성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 어려움 ·체계적 업무처리 어려움

Ⅲ. 박정희 대통령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 분석

1. 용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의한 성격유형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과묵하고 신중하며 빈틈없이 일처리를 하였다. 좋고 싫은 것이 뚜렷하였으며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소신대로 행동하였다. 이러한 성격적 성향으로 보아 박정희 대통령은 내향적 사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내향적 사고형의 단점은 감정이 열등하여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사랑과 미움이 뚜렷하다는 것이다(이부영, 1998; 154).

그런데 박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내향적 사고형의 특징 이외에도 또 다른 모습이 눈에 띈다. 5·16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포섭대상자를 선택할 때 박대통령은 이미 주위 장교들의 자질이나 특성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⁵⁾ 평소에 과묵하여 사람에게 대해 좋고 싫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박대통령은 이미 주위 사람들의 인물 됴됨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조직을 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이 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직관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으로 보아 박정희 대통령은 내향적 사고형이며, 제2기능인 직관이 아울러 발달된 내향적 사고직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스타일 분석⁶⁾

1) 리더십 스타일상의 장점

(1) 개혁적 정책 추진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군사혁명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려고 생각했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5·16을 ‘민족혁명’이라고 부르면서, ‘혁명은 정신적으로 주체의식의 확립혁명이며, 사회적으로 근대화혁명이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인 동시에, 민족의 중흥 창업혁명이며, 국가의 재건혁명이자, 인간 개조 즉 국민 개혁혁명인 것이다’고 하였다.⁷⁾ 박대통령은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후진성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성장을 최고의 정치적 목표로 정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유례가

5) “이 친구는 입이 가버워. 이 친구는 ○○○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만히 놓아 두어도 우리 편을 들 사람이니 굳이 포섭할 필요가 없어.” (조갑제, 1998 c: 250).

6) [표2] 에서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직관형 리더십 스타일 참조.

7)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 지구촌, 1997. pp. 33-34.

없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2)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책수행 능력

박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정책을 당시의 경제 여건이 극도로 나쁜 것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⁸⁾ 김정렴(1997)은 박 대통령이 주요 국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진척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필요한 수정·보완을 하여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인사관리에서도 이러한 세심하고 치밀한 성격을 보여 주었다. 정정길(1994)은 “박대통령이 전문성을 갖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관리체제를 만들고,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를 대통령 비서관과 장·차관에 임명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군부도 배려하여 군 출신 추종자들에게 장관자리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정치적 배려가 경제 정책의 효율적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을 하였다”고 하였다.

(3) 끈기있는 정책추진 능력

박정희 대통령은 뛰어난 정책추진 능력을 보여 주었는데,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평소 과묵하여 남의 의견을 주로 듣는 편이지만 그렇게 충분히 듣고 나서 결단을 내리면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히 추진하였다(김정렴, 1997; 319). 박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성공적인 결과를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작한 일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착수한다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물질·인적 자원만 헛되이 낭비하고 만다는 점에서 시작하지 안한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틈나는 대로 현장확인을 하며 독려했다(김정렴, 1997: 83).

(4) 적재적소 인재발탁

박대통령의 가장 뛰어난 점은 용인술이었다. 그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60년대에 장기영과 김학렬 두 부총리를 발탁하여 경제정책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정정길, 1994; 84-85). 이것은 박대통령에게 뛰어난 직관력, 즉 보이지 않는 재능의 깊이와 가능성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개성을 잘 파악하였기 때문에 박대통령은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는데 뛰어났다. 따라서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갈등 없이 골고루

8) 김충남,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서울 : 전원, 1998. p. 88.

쓸 줄 알았다.9)

이상우(1987)는 박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1인 집권체제를 구축하기까지 박정희는 치밀한 제도와 빈틈없는 통치술로써 자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경계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다. 민정으로부터 3선 개헌에 이르는 동안 박정희대통령은 공화당 내 주류 비주류의 두 세력을 교묘히 조종하면서 자신의 정치비전을 실현해 나갔다. 3선 개헌은 그의 기막힌 용인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2) 리더십 스타일상의 단점

(1) 독재의 출현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발전으로 박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이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독선적인 생각은 결국 박대통령으로 하여금 3선 개헌, 10월 유신을 거쳐 영구 독재의 길을 밟도록 하였다.

(2) 뚜렷한 흑백논리

박대통령은 대인관계에서 친·소, 호·불호 감정을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지역감정, 지역차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우(1987)는 박대통령 집권 중에 형성된 각 부문의 지역적 편차는 정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권자의 성격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며, 박대통령이 비판세력을 거세하려고만 하는, 이를테면 적과 동지라는 2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승조(1992)도 “인사정책에 있어서 정부 고위직의 임명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배경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안배, 직업, 대학, 기타 사회집단의 대표성이란 것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인데, 박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런 면에서 훨씬 가시적인 편향성을 보여서 국민사이에 위화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평가했다.

(3) 설득력 부족

박대통령은 과묵하여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유신이전에는 정교한 논리를 펼치지 못했어도 직설적으로 투박하게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유신이후 1970년대에는 지식인들의 비판에 대해 논리적

9) 박종홍과 같은 철학가와 김정렴과 같은 모범생, 이후락과 같은 지모인, 김형욱과 같은 저돌적 인물들을 두루 등용하였다.

으로 설득해 나가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조갑제, 2000: 43). 야당인사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유신체제는 정권연장을 위한 과장된 상투적 수단이다’는 비판에 대해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북한의 남침위협에서 찾았으나 설득력이 없었다.

(4) 현실인식 부족과 대중적 지지 결여

박정희대통령은 대중인기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다. 조국의 근대화 업적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비판이나 반대 여론은 실적과 결과를 가지고 압도하려고 애썼다. 박대통령은 재임 중 입버릇처럼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일하지 않겠으며 내가 하는 일은 후세 사가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름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과 통치전략을 구사했다(김호진, 1999: 420). 박대통령이 최고의 정책목표로 내건 것은 ‘조국의 근대화’ 혹은 ‘민족중흥’으로 상징되는 경제개발정책이었다. 동시에 경제개발정책으로 공업확대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적 리더십은 더욱 경직성을 띠어 갔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 억제’라는 정치발전의 역행 현상이 뒤따랐다(김용철, 1984: 93).

이처럼 민주적인 정치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박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고등교육을 통해서 1960년대에는 이미 지식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4·19 혁명을 통해 지식층의 민주화의식이 분출되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러한 민주화 역량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박대통령이 생각한 민주주의는 지식층의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유신 직후 중정국장을 지낸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은 박대통령의 자랑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 이 정도면 민주주의 잘 하고 있는 거야. 세계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얼마나 돼. 18개 나라 뿐이야.” 대통령은 일일이 18개국을 손가락으로 다 꼽은 뒤 ‘동양에서는 일본뿐’ 입을 강조했다.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는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굶어 죽는 사람한테 인권은 무슨... 백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인권정책이야” 라고 외쳤다.¹⁰⁾

IV.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평가

1.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분석모형」의 적합성

10) 중앙일보, “실록 박정희 시대”, 1997. 12. 18.

1) 리더십 스타일상의 특징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으로서의 ‘공과 과’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박대통령은 집권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18년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4·19로 싹튼 민주주의를 짓밟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했으며, 지역간의 불균형발전과 지역감정을 심화시켰다(최정호, 1993: 106).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내향적 사고형의 특징 중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흑백논리가 뚜렷한 성격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는 내향적 사고형의 장점이 잘 반영되어 국가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개혁하려고 하는 열망이 강하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데에도 집요하였다. 반면에 단점도 또한 리더십 스타일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신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자만심은 장기 독재를 하게 만들었다.

박대통령의 용인술에서는 내향적 직관형의 뛰어난 직관력이 돋보였다. 이러한 직관력으로 박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 이념으로서의 나폴레옹

박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나폴레옹에 심취하여 자신을 나폴레옹과 동일시하였다.¹¹⁾ 박대통령과 같은 내향적 사고형은 ‘객관적 현실보다 이념이나 관념에 더 영향을 받고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이부영, 1998: 150). 따라서 외부의 대상을 내재화하여 이념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뛰어나다. 이러한 성향을 생각해 볼 때 박대통령에게 나폴레옹은 단지 존경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나폴레옹의 인생과 동일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나폴레옹이 자신의 이념이 되어 버린 결과 박대통령은 군인정신이 뼈 속까지 스며든 그야말로 ‘군의 화신’이 되었다. 이 같은 투철한 군인정신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으며,¹²⁾ 또한 박대통령의 정책추진과정에도 잘 반영되어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11)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 동기생 이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멋(무엇) 보다 나폴레옹의 소싯적 시절인데, 솔직히 말하면 내하고 닮은 점이 많아 재미있다, 이 말이다. 우선 말이다. 내처럼 가난한 촌놈 출신이고, 그의 하하(엄마)나 우리 하하가 지극 정성인 점에 매우 닮은 점이 있거든. 그리고 또 응. 나머지는 쯤(쯤) 우습지만, 키도 내강 비슷하고, 소싯적 꿈도 희한하게 같단 말이다.” 그 꿈은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었다(정영진, 1997: 181-182).

3) 쿠데타에 대한 죄책감

박대통령은 쿠데타에 대해 ‘혁명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죄책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1977년 박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 5학년 때의 담임이었던 ‘기시’선생을 청와대에 초청한 적이 있는데, 그를 배웅하기 위해 본관 현관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쿠데타의 지휘자로서 이곳을 무혈점령한 제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서 운명의 불가사의를 느낍니다. 그러한 내가 언제 살해될지 모른다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조갑제, 1998 b: 58-59). 그리고 죽기 한 달 전까지 청와대 침실의 침대 발끝 오른쪽에 카빈 소총 2정을 두고 잠을 잤다. 총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박정희는 그 총구가 언젠가는 자신을 향할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조갑제, 1998 a: 21).¹³⁾ 쿠데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내향적 사고형의 성격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내향적 사고형은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고 내성(introspection)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심리유형이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가장 잘 인식한다. 따라서 총칼을 들고 권력을 쟁취하였지만 그러한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2.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분석모형」의 한계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분석모형」으로 분석하면 박대통령은 내향적 사고형이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의 장·단점을 모두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모형이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 있다.

1)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

내향적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이 강해서 절차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대통령이 ‘경제개발’이나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논리를 무시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내향적 사고형의 성격으로는

12) 강창성 전보안사령관의 증언이다.

“계엄선포 한달 전쯤인가 박대통령이 나를 불렀어요.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박대통령은 일본군 장교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장화에 점퍼차림인데 말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박대통령은 가끔 이런 옷차림을 즐기곤 했지요.”(김진, 1992: 203)

13) 박정희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의 많은 책자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박정희는 “누가 나를 노리고 있다. 머리맡에 권총을 숨겨놓지 않으면 두려워 잠을 이룰 수 없다.” 박정희는 술만 취하면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정상구, 1992: 138).

설명할 수 없는 점이다. 박대통령에게는 목표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이며,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나 수단의 합리성과 도덕성은 무시되었다. 사실 박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여 절차나 토론보다는 힘으로 누르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무사도 정신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면서 권위주의적 문화를 충실하게 내면화하였으므로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대통령이 20여년 간 군대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군사문화도 또한 이러한 성향을 강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2) 가난극복 동기를 합리화시킨 경제개발 정책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가난을 뼈저리게 겪으며 성장하여 가난에 한이 맺혀 있었으며, 이러한 한 맺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개발을 국가제일의 목표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가난극복’에 대한 개인적 동기는 경제개발이라는 공적 목적으로 전위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것은 Lasswell(1962: 59)이 정신분석학을 정치학에 응용하여 ‘정치인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욕망은 개인적 동기를 공적인 목적으로 전위시켜 공공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여 표출한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독재자와의 동일시

박대통령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으며 이대통령의 독재와 장기 집권, 부정선거 등을 혐오하였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1952년부터 혁명을 꿈꾸고 있었다(정영진, 1998 b: 183-197). 그러나 박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 이승만 대통령의 12년보다 더 긴 18년간의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였다. 이러한 점은 내향적 사고형의 단점에서도 예상할 수 있지만, ‘정신분석학’에서 더욱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Brenner (1974: 225-227)는 ‘독재자를 혐오하는 혁명가는 독재자와의 투쟁과정에서 이미 자신을 독재자와 동일시하여 자신이 타도대상으로 외치는 바로 그 독재자와 같

14) 김정렴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이야기하였다.

‘박 대통령은 전국에 밤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도록 독려했다. 그는 밤나무에 대해 이런 사무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국민학생 때 수업을 마치고 20리 길을 걸어 집에 오면 배가 무척 고파어요. 어린 마음에 먹을 것을 찾아 부엌에 가서 솥뚜껑을 여는데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말랭이나 장아찌 같은 것도 없고… 할 수 없이 간장을 손가락에 찍어 먹곤 했지요. 그때 뒷산에 밤나무라도 있었으면 밤을 찌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체구가 작은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박 대통령은 밤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가을에 밤이 많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는 어린이들이 허기는 면할 수 있게 됐다”며 무척 흐뭇해했다.’ (김정렴, 1997: 318).

은 권력을 누리고 같은 권위를 즐기려는 무의식적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V. 김영삼 대통령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 분석

1.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의한 성격유형

김영삼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다. 사람들을 잘 사귀고 편안하게 해주며 입에 든 사탕도 꺼내서 남에게 줄 줄 아는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다. 그리고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말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¹⁵⁾ 또한 김대통령의 정치는 「감의 정치」라고 할 만큼 감각이 뛰어나고 현실상황 판단이 정확했다. 한번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일을 추진하는 박력이 있었고, 위기상황에서도 뛰어난 순발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곤 하였다.

이러한 성격적 경향으로 보아 김영삼 대통령은 외향적 감정형에 속하며, 제2 기능인 감각이 아울러 발달한 외향적 감정감각형으로 보인다.

2.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분석¹⁶⁾

1) 리더십 스타일상의 장점

(1) 국민이 원하는 정책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탈군부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문민정부라고 스스로 칭하고,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다(김형준, 2007). 김대통령은 군사독재 정권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의식, 관행과 타성을 한국병이라고 규정하였다(김영삼, 2001). 그리고 한국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세우며 개혁과 사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군의 정치개입을 막고 군사 쿠데타를 근절하기 위해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해체시켰고(김창기, 2000),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였다(박관용, 2001). 청와대 근처에 있는 안가를 철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15) 외향적 감정형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관계에 기름을 치는 장점이 있으나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단점이 있다.(이부영, 1998: 157).

16) [표2] 에서 외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의 리더십 스타일 참조.

1993년 3월 4일 대통령 스스로 정치자금을 안받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993년 8월 12에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김영삼, 2001). 이러한 개혁은 부정부패에 식상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김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초 70.0%에서 1993년 11월에는 87.3%까지 상승하였다(김형준, 2007).

그런데 김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개혁을 선택하였으나 명분만 있을 뿐 개혁에 필요한 철학과 역사적 비전이 없었다. 또한 성취해야 할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실천전략도 없었다. 따라서 개혁작업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김호진(2010)은 개혁정책이 즉흥적이고 인기지향적으로 추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김충남(1998)도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과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개혁의 범위가 너무 넓다, 총론은 있으나 구체적인 각론은 없다, 개혁의 성과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평가하였다.

(2) 친화력있는 지도자

정윤재(1993)는 김영삼 대통령이 친화력과 포용력이 뛰어난 ‘덕장형’ 지도자로 평가하였으며, ‘부드러운 남자’, ‘사람을 아끼고 위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직위와 신분을 떠나 어떠한 사람과도 부담을 주지 않고 격의 없이 지내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였다. 강준만(1995)도 김대통령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며 친근감을 느끼게 만드는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 최영범(1992)은 김대통령이 낙천적이며 사람을 편하게 하는 특유의 기질로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좀처럼 관계를 끊지 않고 항상 관리했다고 하였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친화력은 특히 정상외교에서 돋보였다. 조선일보 정치부장 김창기(2000)는 김대통령이 조직외교보다는 정상외교를 더 선호했는데, 이는 자신이 상대국 정상과 긴밀한 신뢰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양국 외교부 사이의 외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장엽 북한서기 망명사건 때 황서기가 한국으로 무사히 망명하게 된 데에는 중국 강택민주석, 필리핀 라모스대통령과 김대통령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¹⁷⁾

17) 김대통령은 2000년 10월 고려대 특강에서 당시의 비화를 소개했다.

황장엽 서기가 북경주재 우리나라 영사관에 피신했을 때 북한이 황서기를 내줄 것을 요구하여, 강주석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이때 비밀 사신을 보내 "당신이 형제처럼 지내자고 말했지 않았느냐. 황서기를 북으로 보내면 총살될 것이니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다. 다시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세상에 이럴 수 있나. 나하고 관계는 심각해질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바로 보내기는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다시 특사를 필리핀으로 보내 라모스대통령에게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라모스 대통령은 "김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들어야죠"하며 승낙했다.(김영삼, 2001: p. 49)

그러나 국내정치에서는 이러한 친화력을 발휘한 화합정치를 펼치지 못하였다. 김창기(2000)는 김대통령이 야당과의 정치를 매끄럽게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은 김대통령이 김대중을 대단히 경계했고 불신했고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야당과의 불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노동법 개정이나 한국은행법 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김형준(2007)은 김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예산안과 노동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던 김대통령의 이미지가 파괴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였다. 김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의 핵심은 ‘감’으로 요약되는 ‘감의 정치’이었다. 논리나 과정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을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자신의 위치를 반전시켰다. 최형우(1993)는 “김대통령이 시국을 보는 눈, 그리고 정국을 풀어나가는 통찰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또한 비상한 현실판단 능력과 뛰어난 순발력이 있었다. 그는 매 순간마다 모든 민주세력을 집합시켰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여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김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위기상황에 부딪히면 새로운 개혁이나 개각 등을 통해 정면으로 위기를 돌파하곤 했다. 대선기간 중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 호언장담하였으나, 94년 쌀시장 개방이 결정되면서 민심이 동요하자 김대통령은 세계화구상 발표,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면을 전환시켰다. 이로 인해 94년 4월 33.7%까지 떨어졌던 지지도는 96년 1월 74.6%까지 상승하였다(김형준, 2007).

2) 리더십 스타일상의 단점

(1) 정책의 일관성결여

김영삼 대통령은 정책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원리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계획 하에 정책시행 시기를 선택하지도 못하였다. 어떤 곤경에 처했거나 여론이 크게 악화했을 때 국면전환용 임시방편으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곤 하였다. 김형준(2007)은 “김대통령이 민심이반 등으로 통치환경이 변화했을 때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환경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면서 김대통령은 끈임없는 개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에 대해 김호진(2010)은 “감에 의한 승부사형 리더십은 순발력을 요하는 정치계 임에는 강하지만 국가경영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감’에 의해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 결여 문제가 나타난다. 일관성없이 우왕좌왕했던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북정책이었다¹⁸⁾. 김형준(2007)은 김대통령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하면서, 취임 초기 신한국 창조가 국정운영의 기조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세계화로 기조가 바뀌었고, 95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로 국정목표를 바꿈으로써 스스로 개혁을 ‘깜짝쇼 화’ 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였다.

(2)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

강준만(1995)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김대통령을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더 듣는 사람’ 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였다. 교육문화사회수석을 지낸 김정남도 “김대통령은 아주 탁월합니다.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게 옳은 얘기라면 받아들여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장점을 지닌 분입니다.”¹⁹⁾ 김대통령은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선 대단히 탁월한 화술을 갖고 있었지만, 지식과 논리를 필요로 하는 정책과 관련된 대화에선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대통령은 정책결정을 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다 싶으면 그 의견에 전적으로 따랐다. 따라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그때그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김영삼 정부가 대응한 사례가 이러한 김대통령의 의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김대통령이 핵문제와 관련해 우왕좌왕한 데에는 강은파의 대립이 한몫을 했다. 김대통령은 누구의 보고를 먼저 받느냐에 따라 오락가락 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동아일보사 특별취재팀, 1999 b: 91-92).

18) 대북 정책은 남북 정상 회담제의, 이인모 노인 송환, 쌀 15만톤 제공 등 감상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에 보여 주었던 수시로 강경책으로 급선회하곤 하였다. 전문가들은 김대통령의 대북인식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과 논리부재 때문이라고 보았다.

19) 강준만, 「김영삼 이데올로기」, 서울: 개마고원, 1995. p. 38

VI.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평가

1.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분석모형」의 적합성

1) 정책의 일관성 결여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외향적 감정감각형은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화합 정치’를 펼칠 수 있고, 현실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순발력있게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여 남의 말을 듣고 쉽게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을 표류하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각적 느낌에 따라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점도 정책이 표류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친화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 국내정치에서는 이러한 친화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편협된 지역편중인사, 자기사람 심기 등의 인사정책을 펼쳐서 결과적으로 ‘망사가 된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두드러져서 대북정책이나 재벌정책, 외교정책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2) 감성적 업무처리로 인한 문제점 - 비선조직 선호성향

김영삼 대통령은 감정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아서 인간관계에서도 정과 의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어서, 인간적인 정이나 신뢰가 느껴지지 않는 인간관계에서는 업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⁰⁾ 김 대통령은 ‘친분이 없는 공적인 관계’뿐인 정부 각료들에게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각 부처 장관들과는 국정을 긴밀히 협의하지 못하였다. 김충남(1998)은 “김대통령이 주재한 국무 회의나 장관 회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 비해 그 횟수가 보잘 것 없었다. 반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는 매주 금요일

20) 결재과정에서도 이러한 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측근 한 사람이 김대통령의 이러한 성향을 잘 간파하였다. 그는 김대통령 집권 2년 7개월 동안 옆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대통령 설득법’을 가르쳐 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세 가지 수칙을 지켜라. 첫째, 보고서 내용을 몇 마디로 압축해 맨 앞장에 기록해서 들고 가라. 둘째, 논리를 앞세워 설득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라. 셋째, 보고는 되도록 간단히 하고 분위기를 살리는 어휘를 적절히 선택하라. 딱딱하고 마른 단어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어휘가 유리하다』 그는 여기에 주의할 점 두가지를 덧붙인다. 『대통령이 대중 듣고 있다고 실망하지 말라. 열심히 듣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결재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결재가 안날 때는 약간 실망한 어조로 「이건 꼭 돼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려라. 논리적 설득보다 효과가 낫다.』 (손광주, 1995.10.5: p. 20)

일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장관들과 더불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했다고보다는 비서관들과 ‘비서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한승조(1999)는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가진 실세장관이 아니면 몇 달 동안이고 대통령을 만나서 의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장관들 간에는 대통령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리고 장관들의 재임기간을 보장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던 것도 아니었다. 김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 미만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장관들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계속 교체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향으로 김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따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자연히 비선조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김호진(2010)은 김대통령의 이러한 리더십 특성을 ‘인치형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첫 조각부터 인사가 망사가 되었으며, 필연적으로 정책오류를 수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충남(1998)은 “대통령 비서실이나 내각과 같은 공조직이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기대되는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반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 믿을 수 있는 사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통령 아들의 경우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특급 정보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였다.

3) 의존 성향

김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데, ‘머리는 남에게 빌리면 된다’는 말이 이런 성향을 잘 표현해 준다. 김대통령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 예를 들면 국내정치 분야에서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였다. 비서실장을 지낸 김광일(2001)은 김대통령이 정확하고 건전한 건의는 그대로 수용하는 지도자이며, 한번 결정한 일이라도 더 나은 정책이 있거나, 처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저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한다고 하였다. 정책결정을 할 때에도 그때 그때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김대통령의 머리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김대통령은 특히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서 의존적인 성향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2.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근거로 한 분석모형」의 한계점

1) 김영삼 대통령의 히스테리성 성향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근거한 분석모형」으로 분석하면 김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결여’ 현상과 ‘비선조직 선호성향’ 그리고 ‘의존성향’은 잘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모형은 김영삼대통령의 경우에도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에게 이러한 분석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양상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5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 스타일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표현은 ‘깜짝쇼’, ‘칼국수’, ‘골프공’이었다. ‘깜짝쇼’는 남들의 관심을 최대한 자신에게로 끌기 위한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고, ‘칼국수’는 자신의 청렴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했던 행동을 말한다. ‘골프공’은 변덕스럽고 즉흥적이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표현이었다. 김호진(2010)은 이러한 김대통령의 리더십을 ‘과시형 리더십’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은 과시적 충동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김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과시적이고 변덕스러우며 항상 남들의 관심을 끌려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히스테리성 인격에서 볼 수 있는 ‘남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끊임없이 보이며, 과시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며, 또한 변덕스러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특징(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655; Abse, 1987: 158-16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535)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1994년 11월 17일 호주 시드니에서 발표한 이른바 ‘세계화 장기구상’이다. 당시 김대통령은 제2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차 자카르타에 갔었다. 회담을 끝내고 호주의 시드니로 가는 도중 대통령전용기 안에서 김대통령은 갑자기 수행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할 기사거리를 찾는 것이었다.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은 ‘특별한 뉴스가 없고 쉬어가는 일정이니 그냥 편안하게 간담회를 하시라’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날 때면 ‘어떻게든 기사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이것은 김대통령의 과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잠시 후 김대통령은 한이현 경제수석에게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할 기사거리로 ‘세계화를 경제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여기에서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김대통령의 성격이 잘 나타난다). 한수석은 즉시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세계화를 경제와 접목시켜 결과를 내일 새벽까지 호주로 보고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리고 한수석은 호텔에서 17일 새벽 5시까지 작업하여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17일 아침 김대통령은 목고 있

던 호텔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세계화 장기구상’을 내놓았다. 급조된 것이었지만 내용은 청와대 비서진들의 놀라운 순발력 덕분에 꽤 번듯하게 치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세계화 구상’은 그러나 사전에 아무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지도 못한 채 결국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더우기 ‘기존에 추진해 온 국제화’와 ‘세계화’가 어떻게 다른 지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정립하지 못하였다.²¹⁾

2) 김영삼대통령의 히스테리성 리더십 스타일

히스테리성 인격에 대해서는 밀런(Millon)이 체계적으로 잘 분석을 하였는데 (Millon, 1996: 357-392), 밀런(Millon)이 분석한 히스테리성 인격의 특징을 바탕으로 김대통령의 리더십 특징을 분석하였다.

(1) 연극적이고 과장된 행동

김영삼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과장된 표현이나 과시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강준만(1995)은 “‘보안’을 생명으로 삼아 단행한 군사작전식 개각은 내용이 별 것도 없는데도 김대통령은 개각을 ‘제 2의 건국, 제 2의 광복을 위한 큰 전진의 시작’이라는 등 상식적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다. 그는 이처럼 터무니없을 정도의 과장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대통령이 자신의 도덕적 결백증을 과시하려고 드는 것이나, 정치노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것도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해외 순방외교는 김대통령의 과시적인 면모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공식 비공식 수행원과 경호팀이 대규모인 탓에 호텔예약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 청와대와 외무부의 의전팀이 준비에 애를 먹은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프리 로빈슨은 저서 『호텔(THE HOTEL)』에서 1995년 3월 김대통령의 영국 방문 당시에 있었던 뒷얘기를 상세히 공개했다(동아일보사 특별취재팀, 1999 b: 143-144).

(2) 관심을 추구하는 행동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론의 중심에 서서 못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른바 ‘스타의식’이 대단히 강했다. 김영삼정부 출범 후 중요정책결정에서 보여 준 가장 큰 특징이 군수뇌부 경질을 통한 군 개혁, 금융실명제, 김일성과의 회담발표 등 일련의 ‘깜짝쇼’였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21) 동아일보사 특별취재팀, 「잃어버린5년-칼국수에서 IMF까지(1)」, 서울: 동아일보사, 1999. pp. 258-265

(김용신, 1995: 24-25).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40년 정치 생활 동안 신문 1면 톱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심하게 말하면 자신이 여론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라 김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뉴스를 만들어 냈다(강준만, 1995: 90).

(3) 경박한 인지방식

김대통령은 유별나게 실언을 많이 하였다.²²⁾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실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없이 웃어 넘겼다. ‘저런 대 정치 인도 실수를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여유있는 태도이다. 그렇지만 김대통령의 실언에는 히스테리성 인격들이 보이는 인지기능상의 중요한 결함이 있다. 히스테리성 인격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사물을 인식한다. 그들은 산만하고 알팍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경험을 통해 깊이있고 통합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다. 김대통령도 깊이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감각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대상을 인지한다. 따라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다.²³⁾

(4) 변덕스러움

김영삼 대통령은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성향을 집권기간 내내 보여주었다. 강준만(1995)은 “안정된 정치는 ‘예측 가능’한 데서 얻어지는 것이며, 김대통령 자신이 ‘정치란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고 자주 말해 왔다. 그러나 인사에서는 ‘비밀주의’, 정치에서는 ‘예측불허’ 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충남(1998)은 “안보·통일정책은 보수적 노선과 진보적 노선을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분명한 전략적 기초와 정책 방향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김대통령은 또한 장·차관 등 정부 요직을 수시로 교체했다. 그런데 장·차관이 바뀌면 국·실장 이동 등 인사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국영 기업체장 등 부처 산하 공공 조직에도 인사 태풍이 일어난다. 장명수는 김영삼의 이러한 용인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하였다. “그는 취임 초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

22) 국민학교를 방문했을 때 ‘결식아동’을 ‘결식아동’이라고 잘못 표현했고,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자꾸 ‘거제도’라고 말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는 ‘아름다운 공기’라고 말하고, 전경련회장단과의 조찬 모임에서 ‘경부고속철도’를 ‘경부고속도로 철도’ 라고 말해 비서진들을 긴장시켰다.(강준만, 1995: 197-200).

23) 한국일보 논설위원인 장명수는 1994년 1월 초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은 때때로 질문에서 벗어나 멀리 해냈고, 몇 차례 동문서답이 나왔고, 부족한 어휘와 표현력이 듣는 이들을 갑갑하게 했다. 대통령의 동문서답이 더 이상 ‘애교’일 수는 없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다.”고 평하였다. (한국일보, 1994.2.26).

했고, 자신과 임기를 함께 하는 장관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년 간 총리를 네 번 바꾸고, 통일부총리를 다섯 번 바꿨으며, 그와 임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는 장관은 단 두 사람만 남아 있을 뿐이다.”²⁴⁾

(5) 강렬한 감정의 분출

이러한 변덕스러운 기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은 강렬한 감정의 분출이다. 이러한 양상이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화끈한 박력으로 나타났다. 강준만(1995)은 이에 대해 “흔히 ‘돌파력’ 이니 ‘파괴력’ 이니 하는 말로 표현되는 김대통령의 박력은 사실 그의 큰 정치적 자산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기와 결단의 지도자’, ‘뛰어난 돌파력의 소유자’ 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박력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지나칠 경우 상식 이하의 파격적 언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고희문 전 국회부의장은 “골대를 향해 앞 뒤 보지 않고 몰고 가다 우뚝 서버리는 사람이 YS요, 거기에 비하면 김대중씨는 머뭇거리는 제스처라도 쓰지.” 라고 말했다(강준만, 1995: 216-218).

이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는 히스테리성 인격의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김대통령의 타고난 성격에 후천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타고난 선천적 요인으로는 첫째, 어려서 부터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하여 남에게 지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김대통령과 같은 외향적 감정감각형은 깊게 생각하기 싫어하고 무슨 일이든지 쉽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감각이 뛰어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성숙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지적 발전에는 거의 무관심하였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김대통령의 인식 구조는 깊이 있는 논리 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지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히스테리성 인격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외향적 감정형의 특징인 친화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VII.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4) 한국일보, 「김영삼 대통령의 2년」, 1995.2.27.

본 논문은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스타일과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들을 만들기 위해,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기초로 한 리더십스타일 분석모형」을 만들고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박정희·김영삼 두 대통령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격적 특성으로 보아 융의 심리학적 유형상 내향적 사고형에 속하며 제 2기능인 직관이 아울러 발달된 내향적 사고직관형으로 볼 수 있다. 박대통령의 리더십스타일에는 내향적 사고형의 장점이 잘 반영되어 국가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개혁하려고 하는 열망이 강하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데에도 집요하였다. 또한 뛰어난 직관력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용인술을 구사하여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반면에 단점도 또한 리더십 스타일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신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자만심은 장기 독재를 하게 만들었고,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적 성향은 지역간의 불균형발전과 지역감정을 심화시켰다. 박대통령의 리더십스타일에서 이러한 분석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내향적 사고형은 논리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박대통령은 과정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둘째, 박대통령은 한 맺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개발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점은 라스엘이 ‘정치인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욕망은 개인적 동기를 공적인 목적으로 전위시켜 공공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여 표출한다’고 말한 것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박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 집권, 부정선거 등을 혐오하였지만, 이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정신분석학’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독재자를 혐오하는 혁명가는 투쟁과정에서 독재자와 동일시하여 독재자와 같은 권력과 권위를 즐기려는 무의식적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융의 심리학적 유형상 외향적 감정형에 속하며 제 2기능인 감각이 발달한 외향적 감정각각형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외향적 감각형의 장점인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취임 초부터 ‘한국병 치유와 건강한 신한국 창조’를 내세우며 개혁과 사정작업을 추진하였다.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해체시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였다. 청와대 근처에 있는 안가를 철거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그러나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두드러져서 대북정책이나 재벌정책, 외교정책 등에

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이러한 분석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다. 김대통령의 행동은 ‘항상 남의 관심을 끌려고 하며 과시적이고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히스테리성 인격의 행동과 아주 비슷한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히스테리성 행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과장된 표현이나 과시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한국병은 단군이래 생긴 병’ 이라고 말을 한 것이나, 해외순방외교에서의 과시적인 행동이 이러한 예가 된다. 둘째,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군수뇌부 경질, 금융실명제 등의 ‘깜짝쇼’는 이러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셋째, 인지방식이 경박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이나 실언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넷째,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을 집권기간 내내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정책이었다. 다섯째, 이러한 변덕스러운 기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양상으로 ‘강렬한 감정의 분출’이 있는데, 김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양상이 ‘화끈한 박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김영삼 대통령의 히스테리성 성향은 외향적 감정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친화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바탕을 두어 이 논문에서 개발한 리더십 스타일 분석모형이 대통령의 성격 유형과 리더십 스타일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점이 있지만 이러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박정희, 김영삼 두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심리학적 유형론에 근거한 이론적 연구가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학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정치학 연구에 있어 심리학과 친화력이 정치학에서의 연구결과가 풍성해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어느 모형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이 분석 모형도 모형의 특성상 중요한 특징만을 부각시킬 뿐 모든 것을 완전히 분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분석 모형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개략적인 큰 틀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심리적 이론을 적용하여 특성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 분석모형은 특정한 성격 유형의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모형은 특히 대통령선거 때 각 후보들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줌으

로써 국민들이 ‘시대에 적합하고 유능한 대통령’ 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영식, 2001. 「DJ에 전달된 김정일 성격분석 보고서」, 『월간 말』, 4월호, pp.78-79
- 강준만, 1995. 『김영삼 이데올로기』. 서울: 개마고원.
- 김광일, 2001. 「비서실장의 경험담」, 합성득편, 『김영삼정부의 성공과 실패』, 서울: 나남출판.
- 김영삼, 2000. 『김영삼회고록: 민주주의를 의한 나의 투쟁1』. 서울: 백산서당.
- 김영삼, 2001. 「김영삼 대통령 고려대 특강」, 합성득편, 『김영삼정부의 성공과 실패』, 서울: 나남출판.
- 김용신, 1995. “대해부/김영삼 통치심리: ‘난 통큰 대통령’ 자기도취”. 『뉴스 플러스』(10월 5일), 24-25.
- 김용철, 1984. “박정희의 정치적 리더십 연구: 리더십의 경직화와 그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정렬, 1997. 『아, 박정희』. 서울: 중앙M&B.
- 김종석, 2003. 「노무현대통령의 성격 유형과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연구—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중심으로 —」 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2003, 12
- 김종석, 2006. 「2007년 대권주자 심리분석 시리즈 1-6」, 『신동아』, 5월호~10월호
- 김진, 1992. 『청와대비서실』. 서울: 중앙일보사.
- 김창기, 2000. 「김영삼론」, 합성득편,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서울, 나남출판.
- 김충남, 1998.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서울: 전원.
- 김형준, 2007. 「김영삼대통령과 세계화」, 한국 정치학회 한국 대통령 리더십 학술대회.
- 김호진, 1999.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 김호진, 2010.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 서울: 청림출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 동아일보사 특별취재팀, 1999 a. 『잃어버린5년-칼국수에서 IMF까지(1)』. 서울: 동아일보사.
- 동아일보사 특별취재팀, 1999 b. 『잃어버린5년-칼국수에서 IMF까지(2)』. 서울: 동아일보사.
- 박관용, 2001.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과 비서실장」, 합성득편, 『김영삼정부의 성공과 실패』, 서울: 나남출판.
- 박정희, 1997.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지구촌.

세계일보. 2000년 7월 14일

신용구. 2000. 『박정희 정신분석, 신화는 없다』. 서울: 뜨인돌.

이광복. 1993. 『인간 김영삼 : 섬소년에서 대통령까지』. 서울: 행림출판.

이병주. 1991. 『대통령들의 초상』. 서울: 서당.

이소영. 「박정희와 김영삼의 리더십 비교·분석-집권전반기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이부영 편. 1995. 『의학개론(I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상우. 1987. “박정희, 그 콤플렉스의 정치학.” 『신동아』10월 호, 359-360.

정상구. 1992. 『대통령이 뭐길래』. 서울: 인간시대.

정영진. 1997. 『실록소설 청년 박정희1-입지』. 서울: 리브로.

정영진. 1998 a. 『실록소설 청년 박정희2-야망』. 서울: 리브로.

정영진. 1998 b. 『실록소설 청년 박정희3-권모』. 서울: 리브로.

정윤재. 1993. 「김대통령 개혁리더십의 정치적 성격 연구」, 한국정치학회편,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정정길. 1994.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 서울: 한국경제 신문사.

조갑제. 1998 a.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1』. 서울: 조선일보사.

조갑제. 1998 b.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 서울: 조선일보사.

조갑제. 1998 c.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3』. 서울: 조선일보사.

조갑제. 2000. 「박정희론, 함성득편,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서울 : 나남출판.

중앙일보. 「실록 박정희 시대」, 1997. 12. 18.

최영범. 1992. 「김영삼의 용인술」, 『월간 말』, 2월호 pp. 38-43.

최정호. “한국의 역대대통령론-긍정과 부정속의 거인·장군·범인.” 『월간조선』1993. 1월호, 106.

최형우. “최형우 회고, YS와 30년(하)-김영삼대통령 만들기 가시밭길-.” 『신동아』 1993. 3월호, 276.

한국일보. 「장명수 칼럼」, 1994.2.26

한국일보. 「김영삼 대통령의 2년」, 1995.2.2

한승조. 1992.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서울: 대정진.

함성득. 1999. 『대통령학』. 서울: 나남출판.

함성득편. 2000.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서울: 나남출판.

함성득편. 2001. 『김영삼정부의 성공과 실패』, 서울: 나남출판.

Abse, D.W. 1987. *Hysteria and Related Mental Disorders: an Approach to Psychological Medicine*. 2nd ed. Bristol: Wright.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renner, C. 1974. *An 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 New York: Anchor Press.

Jung, C.G. 1979. *Psychological Type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Lasswell, H.D. 1962.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The Viking Press.

Millon, T. et al.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 IV and beyond*. 2nd ed.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Character Type and Leadership Style of Two Korean Presidents: An Application of Jung's Psychological Types

Jong-suk Kim

This study made an analytical model based on Jung's psychological type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the president, and analyzed President Park Chung Hee and President Kim Young Sam.

President Park Chung Hee belonged to the introverted thinking-intuition type. The strength of the introverted thinking-intuition type was well reflected in President Park's leadership style and worked positively for national development. He had an ardent wish to reform reality to meet his ideal and was eager to drive policy to realize it. He called on talented men and put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On the other hand, the weakness of the introverted thinking-intuition type was also reflected in President Park's leadership style and had a negative result. His self-conceit made him keep Korea under his despotic rule, and his personality of revealing his likes and dislikes was the basis for un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among regions and classes. Regionalism became more severe as a result.

President Kim Young Sam belonged to the extroverted feeling-sensation type. He successfully and flexibly carried out the reform of the military with an excellent political sense. He also established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and made public officials disclose their assets. However, other strengths of the extroverted feeling-sensation type were not reflected in President Kim's leadership style. He was recognized as friendly and broad-minded before becoming president, but he did not show such traits after becoming president.

On the other hand, the weakness of the extroverted feeling-sensation type was highly reflected in President Kim's leadership style and had a negative impact. The lack of economic and diplomatic policy consistency was repeated during President Kim's term of office. President Kim's fickle and improvisational behavior reflected more of a histrionic personality.

【Key words: president, character type, leadership style, Jung, analytical psychology, psychological type, analytical model of leadership style, President Park Chung Hee, President Kim Young Sam】